

MVP 페디·신인왕 문동주... KIA 박찬호 '수비상'

2023 KBO 시상식

페디, '투수 3관왕' 등 5개 트로피
퓨처스 KIA 김현수·김석환 수상

NC 다이노스의 에릭 페디가 2023시즌 KBO 최고의 선수가 됐다. 신인왕의 영예는 한화 이글스 문동주에게 돌아갔다.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이 27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진행됐다. 올 시즌을 빛낸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날 시상식에서 페디가 '주인공'이 됐다.

'20승·200탈삼진'과 함께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 부문 1위를 석권하면서 '트리플 3관왕'에도 오른 페디는 기자단 투표에서 111표 중 102표를 얻어 91.9%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MVP 트로피를 차지했다.

2015년 에릭 테임즈에 이어 NC의 두 번째 정규 시즌 MVP다. NC 투수로는 첫 정규시즌 MVP 등극이다.

페디는 올해 신설된 수비상 투수 부문 수상자가 되면서 MVP와 개인 타이틀까지 5개의 트로피를 동시에 거머쥐었다.

NC의 한국시리즈 진출이 불발된 뒤 미국으로 출국했던 페디는 시상식을 위해 아버지와 함께 26일 한국에 돌아왔다.

페디는 "믿을 수 없다. KBO리그에 감사하다. 올 시즌 믿을 수 없는 시즌을 보냈다. NC에 와서 수상할 수 있다. 모든 프린트에 감사하다. 나를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마산과 창원외의 시민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곳은 나의 제2의 고향이다"며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먼 나라에 와서 큰 도움을 줬다. 아버지도 시상식에 참가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 긴 여행 같이 해줘서 고맙고, 아버지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이젠 아버지의 상이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KBO 시상식에서 KBO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NC 투수 페디(오른쪽)와 신인왕을 수상한 한화 투수 문동주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동주는 85표를 받아 15표를 얻은 KIA 운영철을 따돌리고 '신인왕'이 됐다.

광주 진출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입단한 2년 차 문동주는 프로 첫 시즌 28.2이닝을 소화하면서 '입단 5년 이하 누적 기록 투수 30이닝'이라는 신인상 후보 기준을 충족, 두 번째 시즌에 신인상을 받았다.

올 시즌 23경기에 나온 문동주는 3.72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 8패를 수확하면서, 2006년 류현진 이후 17년 만에 한화에 신인상 트로피를 안겨줬다.

올해 총안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난 운영철은 데뷔 시즌에 122.2이닝을 소화하면서 4.04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 7패를 수확했지만, 아시안게임 대

표팀 활약까지 선보인 문동주를 넘지 못했다.

문동주는 "트로피가 많이 무겁다. 이 트로피 무게를 잘 견뎌야 할 거 같다. 류현진 선배 이후 한화에서 17년 만에 받는 상으로 알고 있다. 이 영광을 팬들에게 돌리고 싶다. 내년에는 우리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더 열심히 던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투·타 개인 부문 1위, 초대 수비상 수상자들도 단상에 올랐다.

한화 노시환, NC 손아섭, LG 홍창기가 두 개의 트로피를 가져갔다. 노시환은 홈런(31개)과 타점(101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렸고, 손아섭은 타율(0.339), 안타(187개) 트로피를 수



27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KBO리그 수비상을 수상한 KIA 유격수 박찬호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집했다. 홍창기는 득점(109개)과 출루율(0.444) 부문에서 1위가 됐다.

또 투수 정수빈은 도루(39개), SSG 최정은은 장타율(0.548) 트로피를 차지했다.

투수 부문에서는 페디가 3개의 트로피를 가져갔고, KT의 쿠에바스와 박영현이 각각 승률(1.000), 홀드(32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됐다. SSG 서진용은 세이브(42개) 부문 1위로 호명됐다. KIA에서는 박찬호가 초대 수비상 주인공으로 단상에 올랐다.

박찬호는 투표인단의 투표 점수(75%)와 수비 기록 점수(25%)를 합산한 결과, LG 오지환과 동물을 이뤘다. 수비상 유격수 부문 공동 수상자가 됐다.

박찬호는 "초대 수상자라는 타이틀이 영광스럽고 우러러보던 선배와 함께 상을 받게 된 것도 영광이다. 믿음으로 저를 이끌어주셨던 박기남 코치님,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퓨처스리그 부문별 시상식에서는 KIA의 김현수와 김석환이 호명됐다.

올 시즌 상무야구단에서 뛰었던 김현수는 9승을 기록하면서 남부리그 다승 1위가 됐고, 김석환은 18홈런·7타점으로 남부리그 타격 2관왕이 됐다.

두 선수는 각각 호주리그와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리그로 이적하면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손흥민이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애스턴 빌라를 상대로 열린 2023-2024 EPL 13라운드 경기를 마친 뒤 낙담한 모습. 이날 손흥민은 폴타임을 소화하며 상대 골망을 3차례 흔들었으나 모두 오프사이드로 골을 인정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3골 오프사이드 취소... "팬들에 죄송"

토트넘 1-2 역전패 '3연패'

"엄청난 응원을 받았지만 경기에서 패해 마음이 아픕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팬들에게 3연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토트넘은 27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 2023-2024 EPL 13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역전패를 당했다.

이날 패배로 3연패에 빠진 토트넘은 순위도 5위(승점 26)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팬들을 안타깝게 만든 것은 손흥민의 잇따른 골 취소 판정이었다.

손흥민은 이날 3차례나 골 그물을 흔들었지만 모두 오프사이드 판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전반 44분 역습 상황에서 치고 들어가 날린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이 골대를 가르기도 오프사이드 판정에 없던 일이 됐다. 후반 14분과 40분에도 손흥민은 골문을 열었으나 자신이나 패스를 준 동료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메트로지는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의 인터뷰를 전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3연패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며 "주장으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상대 수비를 뚫고 골 기회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1-0으로 앞서고 있을 때 경기 컨트롤을 잘 해야 했다"라며 "플레이도 다소 느렸고, 그러다 실점하고 오프사이드까지 나오면서 템포를 잃고 말았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좋은 골 기회를 창출한 것은 다행이지만 홈에서 패한 것은 안타깝다"라며 "팬들의 엄청난 응원에도 패해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I페퍼스, 3연패의 늪 탈출할까

오늘 대전서 정관장과 경기

AI페퍼스가 3연패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8일 오후 7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정관장 레드스파르스를 상대로 경기를 펼친다. 직전 경기였던 지난 23일 현대건설과의 대결에서 완패하며 승점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던 페퍼스에게 반전이 필요하다.

페퍼스는 앞서 지난 10일 2라운드 첫 경기였던 GS칼텍스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4연패의 고리를 끊어냈지만 최근 다시 연패 수렁에 빠졌다.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 지난 19일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1-3으로 패했던 페퍼스는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도 0-3으로 승리를 내어주며 3연패를 기록했다.

이번에 만나는 정관장은 페퍼스가 창단 이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유일한 상대다.

페퍼스는 정관장과의 지난 5일 홈경기에서도 0-3으로 완패한 바 있다. 당시 1세트에서 듀스 점전까지 갔지만 2·3세트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승리를 내줬다. 당시 정관장의 공격 성공률은 48.6%이었다.

정관장은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41세트를 뛰며 공격 성공률 41.9%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팀별 공격 성공률은 페퍼스와의 대결에서 48.6%로 6개 팀 중 가장 높았다.

이번 시즌 10경기 41세트를 뒀던 페퍼스의 공격 성공률은 37.6%이다. 정관장과의 대결에서는 33.3%의 낮은 공격 성공률을 보였다.

최근 정관장의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다. 지난 24일 IBK기업은행과의 대결에서 1-3으로 지며 5연패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페퍼스가 정관장을 상대로 창단 후 첫 승리를 가져오며 3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아스민(오른쪽)과 이한비가 지난 5일 정관장 레드스파르스와의 홈경기에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한국기원 연구생 11위 신유민, 상위 랭커들 제치고 입단



한국기원 연구생 서열 11위인 신유민(17·사진)이 상위 랭커들을 모두 제치고 대망의 입단 관문을 통과했다. 신유민은 26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 156회 입단대회(일반 연구생) 최종국에서 연구생 2위 양준찬(18)에게 18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3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8승 1패를 기록한 신유민은 단 1명에게 주어지는 프로기사 입단 면장을 획득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종 라운드 1국에서 연구생 서열 1위인 윤서원(15)을 물리친 신유민은 오후에 열린 최종국에서 랭킹 2위 마저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신유민 초단은 "그동안 박독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입단할 수 있게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